



속보: 2011년 10월 14일

CUOMO 주지사, 로어 맨해튼의 성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 교회 재건축 착공 동의서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hris Ward 항만공사 사무차장, 그리스 정교회 대교구 대표들, 성 니콜라스 교구 및 Dean Skelos 다수당 대표와 함께, 130 Liberty Street에 있는 리버티 공원 동쪽 끝에 초교파 사별 센터와 교회의 재건축을 허가하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는, 교회가 세계 무역 센터 공사 일정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원래 계획에 약간의 수정과 함께 그 장소에 지어질 수 있을 것을 결정한 항만공사와 대교구의 위임을 받아 행해진 4개월간의 독립적 공학기술 연구에 따른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는 지난 9-11 사태때 손실되었으며 너무나 오랫동안 그 미래가 불확실했었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초교파 사별 센터와 함께 성 니콜라스 교회의 재건축은 그리스 정교회 커뮤니티에게 반가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의서로, 우리는 뉴욕의 공동 치유, 복원 및 재생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이 소중한 유산을 그것이 속한 장소로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서 열린 중재 합의 논의의 결과로, 항만공사와 대교구는 독립적 공학기술 연구를 통해 교회를 리버티 공원 내 여러 장소에 재건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4개월간의 연구는 국내적으로 알려진 건설 전문가인 Peter Lehrer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무역 센터 건설 감독 Steven Plate와 독립 공학기술사인 Gorton & Partners 및 McNamara/Salvia, Inc.와 함께 무료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는 교회를 130 Liberty Street에 재건하는 구조적 문제가 원래의 계약에 비교하여 매우 절감된 비용으로, 세계 무역 센터 장소에 건설 지연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